

제104호(2015. 6. 2.)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

박기환



1. 할랄 시장 주목 배경	1
2. 우리나라의 할랄 농식품 대응 현황	3
3. 일본의 농식품 할랄인증 취득 실태와 지원사업	6
4. 정책 과제	16

감 수	김홍상 선임연구위원	02-3299-4236	hskim@krei.re.kr
내용 문의	박기환 연구위원	02-3299-4331	kihwan@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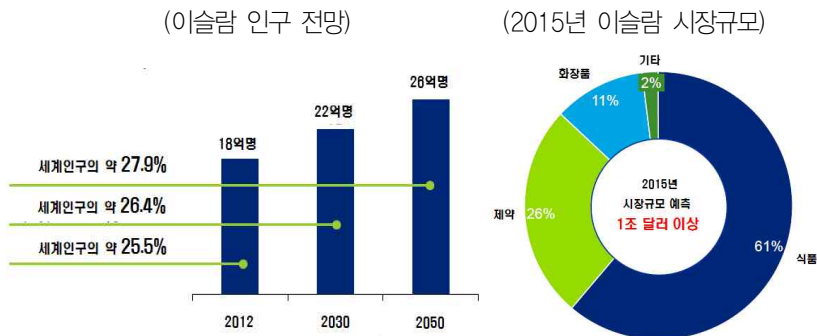
-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향후 이슬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자국 내 이슬람 인구의 유입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할랄 농식품 수출확대는 물론, 국내 할랄 농식품 수요 개척 차원에서도 이슬람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민간단체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국내 할랄인증을 받고 있으나, 최근의 정확한 인증 실태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임
 - 현 단계 정부의 할랄 농식품 관련 지원은 할랄인증 소요비용의 지원과 시장 조사 등이며, “농수산물 수출개척협의회” 내 ‘할랄분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할랄식품TF’ 등을 구성하여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마련 중
- 일본의 할랄인증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아닌 일본무슬림협회, 일본할랄협회, 일본이슬람문화센터 등 민간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농림수산성에서 민간 컨설팅기관에 위탁하여 할랄인증 실태를 파악한 바 있음
 - 일본 식품업체 중 할랄인증을 취득한 건수는 80건으로 가공식품이 전체의 20% 비중 차지, 업태별로는 전체 26건 가운데 레스토랑과 호텔이 24건으로 대부분, 해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의 할랄인증 취득은 총 36건
- 일본 정부는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의 일환으로 할랄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수출 추진 사업자대상 대책사업” 중의 하나로 할랄인증의 취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과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해 50% 보조 지원,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 사업으로 상담회 개최, 해외프로모터 설치, 이슬람권 할랄 전문가 배치 등 실시
 - “수출전략실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수출전략실행위원회 내에 할랄부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할랄인증 취득 지원, 수출 성공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정리검토
 -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을 활용하여 할랄 식육처리시설 설비투자 사업비의 50%를 보조하고, “식품산업 글로벌전개 인프라정비사업”을 통해 이슬람국가 등의 각종 기준이나 규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수출업체 등과 정보 공유
- 한일 간 할랄인증 실태와 지원사업 검토를 통해 얻어진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음
 - ① 할랄인증 실태의 우선적 파악, ② 할랄 식육처리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과 한국 농수산물유통공사의 해외지사를 활용한 정보 수집 및 KOTRA와 공조, ③ 국내 할랄인증기관이 타 국가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 ④ 할랄 시장 개척을 위한 국내외 상담회 개최 등

1. 할랄 시장 주목 배경

□ 이슬람 시장규모가 확대하면서 주요 유망 수출대상국으로 급부상

- 세계 이슬람 인구는 2012년 18억 명에서 2030년 22억 명, 2050년에는 26억 명으로 세계인구 성장률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소득 이슬람 인구도 증대하고 있는 추세임
 - 세계 최대 이슬람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경우 중고소득층 인구는 2030년 2천만 명으로 예상되어 2012년에 비해 3배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¹⁾
- 향후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의 3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슬람 시장 규모도 2015년 시점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거대시장으로 부상 중에 있음
 - 특히, 이슬람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식품으로 전체의 61%를 점유

그림 1. 세계 이슬람 인구 전망 및 시장규모 추정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平成25年度輸出擴大推進委託事業のうち國別マーケティング事業(ハラール食品輸出モデルの策定事業)」, 2014.3.

- 정부는 이슬람 시장규모의 확대에 따라 할랄인증 농식품이 세계 수출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2017년 농식품 수출 100억 달러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서 할랄 농식품에 크게 주목하고 있음

1) 인도네시아의 중고소득층은 구매력 평가 기준으로 1인당 GDP 15,000달러 이상으로 정의 (참고: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평균 월수입은 약 3,000달러 내외)

“

이슬람 시장규모는 이슬람 인구의 증가와 고성장에 힘입어 급격히 확대되어 주요 수출대상국으로 부상

”

“

국내 이슬람 유입
인구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할랄 농식품
내수시장 수요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추세

”

- 일본 정부도 ‘일본재생전략’의 일환으로 2020년까지 농림수산물 수출을 1조엔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이슬람 시장이 부각되면서 일본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서 이슬람 국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

□ 국내 이슬람 인구의 빠른 유입으로 국내 할랄 농식품 수요 확대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이슬람권 관광객 수는 2010년 30만 명에서 2014년 61만 명으로 불과 5년 사이 2배가 증가하는 등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 중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국적의 관광객이 더욱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임
 -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국적의 관광객은 이른바 ‘한류’ 등의 영향으로 인해 같은 기간 각각 2.2배 증가

표 1. 우리나라의 이슬람권 국적별 외래관광객 유입 실적

단위: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아시아권 소계	208,914	280,755	327,329	396,916	452,849
말레이시아	113,675	156,281	178,082	207,727	244,520
인도네시아	95,239	124,474	149,247	189,189	208,329
중동권 소계	89,292	104,163	122,191	130,517	155,219
계	298,206	384,918	448,520	527,433	608,068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일본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슬람 국가에 할랄 농식품을 수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자국 내의 할랄시장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수요 개척에도 노력하고 있음
 - 일본 내 체류하고 있는 이슬람 인구는 1990년 12만 명에서 2010년 19만 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시아권 이슬람 국가의 방문객 수는 저가 항공사 취항과 비자유건 완화로 인해 1990년 10만 명에서 2014년 31만 명으로 급증²⁾

표 2. 아시아권 이슬람 국가의 일본 방문객 수 추이

단위: 명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아시아권 소계	195,151	143,427	231,643	408,260	313,318
말레이시아	114,519	81,516	130,183	249,521	176,521
인도네시아	80,632	61,911	101,460	158,739	136,797

자료: 日本政府観光局(JNTO).

2) 일본은 2013년 7월부터 아세안 국가에 대한 비자 요건을 완화하였음(JETRO, 「日本産農林水産物・食品輸出に向けたハラール調査報告書」, 2014. 5.).

- 특히, 현재 진행 중인 TPP 협상에서도 노동자 유입이 논의되고 있어 향후 일본 내 이슬람 인구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 높아

▣ 농식품 수출 및 내수 확대의 일환으로 이슬람 시장 주목

- 이와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 정부는 향후에도 이슬람 식품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자국 내 이슬람 인구의 유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할랄 농식품의 수출확대는 물론, 국내 농식품의 새로운 수요 창출 측면에서 이슬람 시장에 주목하고 있음

2. 우리나라의 할랄 농식품 대응 현황

2.1. 인증 실태

▣ 국내 할랄인증기관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유일

- 국내의 할랄인증은 유일한 민간 인증기관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를 통해 받고 있으며, 100여 개 기업이 KMF의 인증으로 이슬람 국가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음³⁾
- 할랄인증은 KMF에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면 담당자가 자체 현장 실사를 실시한 후 할랄 농식품으로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로는 할랄인증신청서 표지,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생산허가서(또는 영업허가서), 제품 품목제조보고서, 시험성적서, 제품 제조공정도, 할랄인증 대상 식품의 샘플, 동물성 원료 및 이슬람법에 위배되는 소재 혹은 공정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확인서, 주정미 제조공정에 0.5% 이내로 사용된 경우 원료 생산품의 잔류 에탄올 분석 확인서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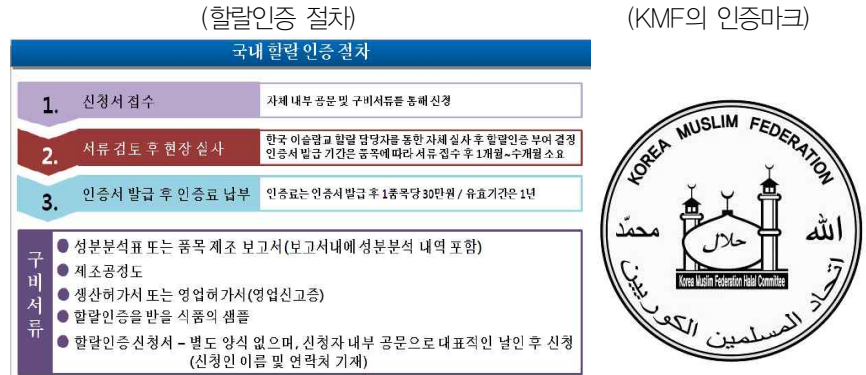
종교법인
한국이슬람교중앙회
(KMF)가 유일한 국내
할랄인증기관

”

3)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는 국내 이슬람 선교를 위해 1964년 4월에 설립된 종교법인

“
국내 기업은
국내외의
할랄인증기관으로
부터 인증을
취득하고 있지만,
정확한 최근의 인증
실태는 파악되지
않은 상황

그림 2. 국내의 할랄인증 절차



자료: 안성돈강병규, “수출 틈새시장으로서의 할랄 식품시장과 축산업계 진출방안”, 「2014 NHRI 리포트」 제241호, 농협경제연구소, 2014;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islam.org>).

□ 최근 국내 할랄인증의 정확한 실태 파악은 이루어지 않은 상황

- KMF로부터 할랄인증을 취득한 국내 기업은 2010년 87개사인 것으로 나타났으며⁴⁾, 농심, 파리바게뜨, 네네치킨 등의 업체에서 면류와 치킨 소스 등의 품목에 대해 할랄인증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 식품업체들은 KMF를 통해 인증을 받고 있지만, 직접 말레이시아 JAKIM이나 인도네시아 MUI로부터 할랄인증을 획득하여 할랄 농식품 수출을 도모하기도 함

표 3. 국내 기업의 할랄인증 현황

업체명	품목	인증시기	인증기관
대상	마요네즈	2010. 12.	인도네시아 MUI
	김, 옥수수유, 당면, 물엿	2012. 1.	
농심	신라면 등 면류	2011. 4.	국내 KMF
파리바게뜨	-	2012. 12.	국내 KMF
CJ	햇반, 조미김, 김치	2013. 3.	말레이시아 JAKIM
크라운	쫄리퐁, 콘칩	2013. 5.	싱가포르 MUIS
풀무원	라면	2013. 7.	말레이시아 JAKIM
전남 고흥군	유자식품	2013. 7.	말레이시아 JAKIM
남양유업	멸균초코우유	2011. 10.	말레이시아 JAKIM
네네치킨	양념치킨 소스, 오리엔탈 파닭 소스	2013. 4.	국내 KMF

자료: 안성돈강병규, “수출 틈새시장으로서의 할랄 식품시장과 축산업계 진출방안”, 「2014 NHRI 리포트」 제241호, 농협경제연구소, 2014에서 재정리

4) 백진경 외, “할랄 인증제에 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인식분석”, 「한국중동학회논총」 제 35권 제1호, 2014.

- 국내 기업은 국내외의 할랄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내의 KMF는 물론 해외인증기관도 인증 실적을 공표하고 있지 않아 품목별 할랄인증 현황 등 최근의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임

□ **국내 할랄인증 식당이 적어 이슬람권 방문객 수요에 대응 미흡**

- 국내의 이슬람권 방문객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할랄인증 음식점은 6곳 정도에 불과함⁵⁾
 - KMF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음식점은 서울 5곳, 강원도 남이섬 1곳
- 이처럼 할랄인증 음식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 말레이시아 국적 방문객의 음식 만족도가 타 국적의 방문객에 비해 가장 낮게 조사된 것으로 판단됨⁶⁾
 - 외국인 방문객의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2014년 94%로 2010년의 88%보다 상승
 - 이 중 음식 만족도는 전체 평균이 86%인데, 말레이시아 국적의 방문객 만족도가 78%로 나타나 국가별로 가장 낮은 만족도 기록

“

국내 할랄인증 취득
음식점은 6곳에
불과하여 이슬람권
방문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

”

2.2. 정부 지원 현황

□ **농식품수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할랄인증 비용 중 일부 지원**

- 정부는 특정 국가 수출 시에 필요한 인증제도 등록 지원을 통해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신규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 대상 인증제도로는 할랄인증을 비롯하여 러시아 GOST-R, 코셔인증, 미국 FDA 인증, Global GAP 등
 - 지원기준은 해외인증 취득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2천만 원 이내로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

5)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oreaislam.org>) 참조
 6) 외국 방문객의 한국 여행 만족도 등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년 외래관광객실태조사」, 2015를 참조

“

현재 우리나라의 할랄
농식품 관련
지원사업은 인증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이며,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모색해
가는 중

”

□ 농수산물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내 할랄분과위원회에서 지원 방안 마련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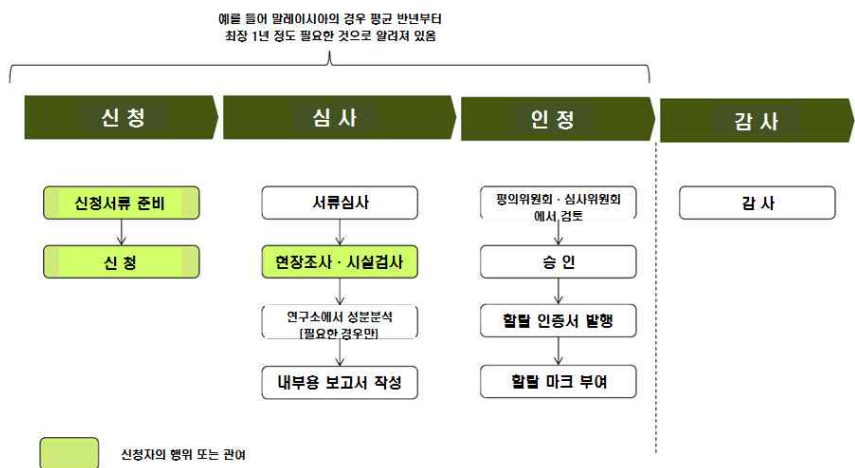
- 정부는 향후 이슬람 시장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고, 국내 이슬람권 방문객 증가로 할랄 농식품의 내수시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수산물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내에 ‘할랄 분과위원회’를 구성(2015.4.7.)하여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시장별 인증기준 분석과 할랄식품 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KMF와 인도네시아 MUI와의 교차인정 추진
 - 또한,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할랄식품 전용단지를 조성하고, 식문화 차이 극복을 위한 홍보·마케팅 추진 예정

3. 일본의 농식품 할랄인증 취득 실태와 지원사업

3.1. 인증 절차 및 인증기관

- 일본의 할랄인증은 관련 종교법인이나 NPO법인 등 민간부문에서 담당
 - 할랄인증 취득 절차는 기본적으로 신청 후 인정기관에 의한 서류심사와 현장 심사를 받으며, 인증 후에는 정기적인 감사를 받게 됨

그림 3. 할랄 인증 프로세스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 「ハラール食品輸出に向けた「手引き」」, 2015. 2.

- 모든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통용되는 할랄인증은 없으나, 수출대상국 인증기관에서 「공인」한 일본 내 인증기관이 할랄인증을 취득한 식품을 수출할 경우 수출대상국도 이를 할랄식품으로 인정함
 - 즉, 수출대상국의 인증기관이 일본의 인증기관에 대해 자국의 기관과 동등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공인하는 제도는 존재
 - 이 경우 일본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취득한 식품은 수출대상국의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취득한 식품과 동일하게 인식
- 일본에는 할랄 인증기관이 다수 존재하지만, 타 국가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 확인된 기관은 일본무슬림협회, 일본할랄협회, 일본이슬람문화센터, 일본아시아할랄협회 등임
 - 인도네시아(MUI), 말레이시아(JAKIM), 싱가포르(MUIS)의 3개국 인증기관에서 모두 인증받은 기관은 일본무슬림협회와 일본할랄협회의 2개소

“

일본의 자국 내 할랄인증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아닌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상황

”

표 4. 일본 국내의 이슬람 국가별 할랄인증기관 현황

	인도네시아 (LPPOM-MUI)		말레이시아 (JAKIM)		싱가포르 (MUIS)		UAE	
	공인	수출 실적	공인	수출 실적	공인	수출 실적	공인	수출실적
종교법인 일본무슬림협회(JMA)	향료 가공식품 분야에서 공인	협회 로써 미확인	JAKIM이 공인기관으로 공표	녹차수출 실적 있음	MUIS는 공인기관 비공표	협회 로써 미확인	신청 중	NA
NPO법인 일본할랄협회(JHA)	공인 신청 중	NA	JAKIM이 공인기관으로 공표	비공표	MUIS는 공인기관 비공표	비공표	신청 중	NA
종교법인 일본이슬람 문화센터	신청 중	NA	신청 중	NA	신청 중	NA	소고기 인증발행 기관으로 등록 완료	소고기 수출실적 있음
종교법인 이슬라믹 센터 저펜	신청 중	NA	신청 중	NA	신청 중	NA	소고기 인증발행 기관으로 등록 완료	수출용 식육가공 공장 인증실적 있음
NPO법인 일본아시아 할랄협회	신청 중	NA	신청 중	NA	MUIS는 공인기관 비공표	비공표	신청 중	NA
일반사단 법인 HDFJ	2014.1 인정취득 지원 사무국 설립	실적 없음	신청 중	NA	신청 중	NA	신청 중	NA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平成25年度輸出擴大推進委託事業のうち國別マーケティング事業(ハラール食品輸出モデルの策定事業)」, 2014.3.

“ 일본의 식품업체 중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한 건수는 80건이며, 이 중 가공식품이 가장 높은 20%의 비중 차지 ”

3.2. 품목별·업체별 인증 취득 현황

□ 일본은 가공식품의 할랄인증 건수가 가장 많고, 2013년부터 인증 급증

- 최근 농림수산성은 민간컨설팅 기관(Mitsubishi UHJ Consulting)에 위탁하여 문헌, 신문, 각종 조사결과, 각 기관 웹사이트 등의 공개된 자료와 일부 청취조사를 통해 할랄인증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바 있음
- 일본 식품업체 가운데 할랄인증을 취득한 건수는 총 80건으로 가공식품이 전체의 20%인 16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조미료(15건, 19%), 음료(11건, 14%), 과자(9건, 11%) 등의 순임
 - 일반 가공식품 등에 비해 닭고기, 소고기, 유제품 등 축산식품의 인증 취득 건수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

표 5. 일본 식품업체의 품목별 할랄인증 취득 현황

단위: 건

품 목	건수	품 목	건수
가공식품	16	소고기	3
조미료	15	유제품	2
음료	11	곡물	2
과자	9	건강보조식품 원료	2
식품첨가물	6	계란	1
건강보조식품	4	어류	1
면류	3	향료	1
닭고기	3	고래고기	1
계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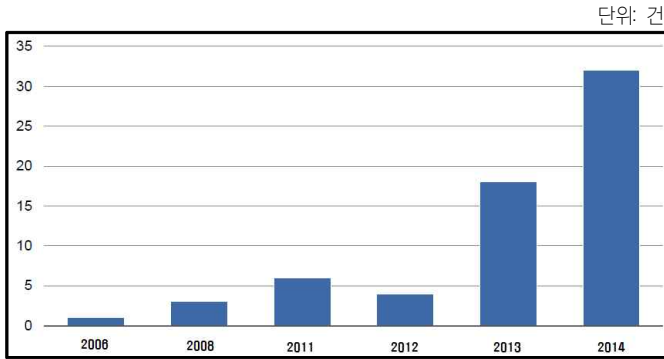
자료: 일본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平成26年度ハラール食品に係る實態調査事業」, 2015.1.

- 일본 식품업체의 할랄인증은 2012년까지 취득 건수가 그다지 많지 않았으나, 2013년에는 17건, 2014년은 32건으로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일본 외식업체의 할랄인증은 대부분 레스토랑과 호텔 중심

- 업체별 할랄인증 취득 건수는 레스토랑이 15건으로 전체의 5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호텔 9건, 카페와 학교식당이 각각 1건 등으로 나타나 대부분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 일본 식품업체의 연도별 할랄인증 취득 추이



주: 취득연도가 불명확한 기업은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품목별 건수의 합계와 불일치
 자료: 일본 三菱UFJ리サーチ&컨сал티링, 「平成26年度ハラール食品に係る實態調査事業」, 2015.1.

- 도도부현별 취득 건수는 동경도가 7건, 치바현 6건, 오사카부 4건, 교토부 3건 등 주로 해외유입 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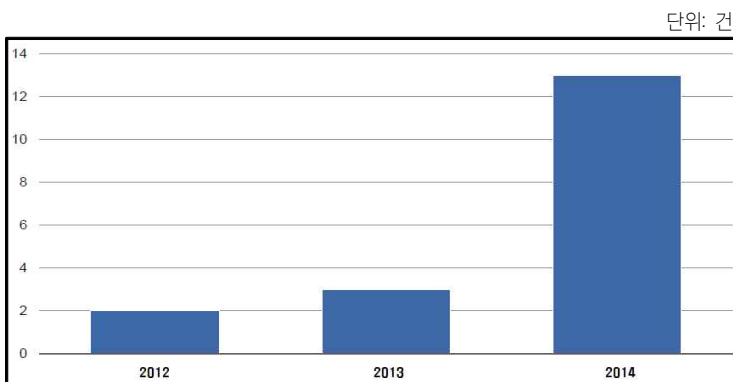
표 6. 일본의 업체별 할랄인증 취득 현황

(업체 종류별)		(도도부현별 업체 수)			
업 태	건수	구 분	건수	구 분	건수
레스토랑	15	동경도	7	이바라기현	1
호텔	9	치바현	6	사이타마현	1
카페	1	오사카부	4	기후현	1
학교식당	1	교토부	3	후쿠오카현	1
계	26	홋카이도	1	오кина와현	1
		계		계	26

자료: 일본 三菱UFJ리サーチ&컨сал티링, 「平成26年度ハラール食品に係る實態調査事業」, 2015.1.

- 일본 외식업체·호텔 등의 할랄인증 취득은 2012년 2건, 2013년 3건, 2014년 13건으로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5. 일본의 업체별 할랄인증 취득 추이



주: 취득연도가 불명확한 기업은 포함하지 않아 업체별 및 도도부현별 건수의 합계와 불일치
 자료: 일본 三菱UFJ리サーチ&컨сал티링, 「平成26年度ハラール食品に係る實態調査事業」, 2015.1.

“

일본의 경우 레스토랑과 호텔에서 할랄인증을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4년에 취득 건수 급증

”

“
 해외에 진출한
 일본기업이 현지
 공장에서 할랄인증을
 받은 건수는
 36건이며,
 인증기관은 MUI와
 JAKIM이 가장 많아

□ 일본 기업의 해외공장 할랄인증은 7개국에서 취득

- 일본기업이 해외에 진출하여 운영 중인 공장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의 할랄인증 취득은 총 36건이며, 품목별로는 가공식품 9건, 조미료 7건, 음료 6건, 과자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7. 해외진출 일본 기업 공장의 할랄인증 취득 현황

단위: 건

품 목	건수	품 목	건수
가공식품	9	소고기	1
조미료	7	향신료	1
음료	6	건강보조식품	1
과자	4	식품첨가물	1
향료	2	면류	1
식용유	2	물류	1
계			36

자료: 일본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平成26年度ハラール食品に係る實態調査事業」, 2015.1.

- 인증 기관별로는 MUI(인도네시아)가 전체의 45%인 20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JAKIM(말레이시아) 12건, CICOT(태국) 5건, MUIS(싱가포르) 4건 등으로 MUI와 JAKIM이 7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8. 해외진출 일본 기업 공장의 할랄인증 기관별 인증 취득 현황

단위: 건

인증기관	건수
MUI(인도네시아)	20
JAKIM(말레이시아)	12
CICOT(태국)	5
MUIS(싱가포르)	4
IDCP(필리핀)	1
IFANCA(미국)	1
HELALDER(터키)	1
계	44

주: 복수의 인증기관에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고 있어 품목별 합계와 불일치

자료: 일본 三菱UFJリサーチ&コンサルティング, 「平成26年度ハラール食品に係る實態調査事業」, 2015.1.

3.3. 업체의 할랄인증 추진 사례⁷⁾

□ 글로벌기업 (주)아지노모토(味の素)사는 1990년대 할랄인증 받아

- (주)아지노모토사는 1990년대 말레이시아 할랄인증을 받았으나, 2003년 말레이시아 인증기관이 해외의 인증심사를 중지함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유대교 식품규정인 코셔 인증도 획득하였음
- (주)아지노모토사는 아스카(Ajinomoto System of Quality Assurance : ASQUA)로 불리는 기준을 작성하여 종교적인 요구사항을 문서화하고 있음
 - 할랄인증을 취득한 제품 및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공정을 명시화하고, 관련 조직과 업무를 명확히 하여 인증취득 방침과 갱신, 원재료 변경 등에 대응
- 또한, 이 회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 할랄제품을 관리하고 있음
 - ① 수출대상국에서 유효한 할랄인증 확인 → ② 인증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요구사항에 대응 준비(예: 어느 정도까지 원재료의 할랄성 담보가 요구되는지, 이슬람 고용이 필요한지 등 확인) → ③ 할랄 대응자 역할 분담 결정(인증기관과의 창구, 원재료 업체와의 대응창구, 원재료 변경 관리방법 등) → ④ 할랄인증 취득제품과 영향 범위를 특정 → ⑤ 비할랄 제품의 관리방법이나 설비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의 판단 가능

□ 중소기업 이노우에(井上)스파이스공업(주)은 할랄인증으로 판로 개척

- 중견중소기업인 이노우에스파이스공업사는 식품전시회 출품 때 일본 내 무슬림의 요구로 인해 할랄 카레의 시제품을 만든 것이 계기가 되어 할랄인증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

일본의 글로벌기업은
회사 차원에서
전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할랄인증에 대응

”

7) 일본 업체 등의 할랄인증 추진 사례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日本産農林水産物食品輸出に向けたハラール調査報告書」, 2014.5.)와 農林水産省(「ハラール牛肉の供給体制の構築に向けた調査事業」, 2014.3.) 자료를 활용하여 정리하였음.

“

중소기업은 일본
맛의 할랄제품을
생산하여 수출 도모,
도축장은 시차를
둬으로써 할랄과
비할랄의 접촉을
방지

”

- 이후 이노우에스파이스공업사는 구 공장을 할랄 카레 등 할랄상품 제조 전용 라인으로 만들어 2011년 NPO법인 일본아시아할랄협회로부터 할랄인증을 취득하였음
 - 그러나 판로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 1년 후 갱신을 보류하였지만, 이슬람 시장의 확대 전망에 따라 2013년에 할랄인증 재취득
- 현재 이 회사가 취급하고 있는 카레는 무침가로 비할랄상품과 비교하면 맛에 차이가 있지만, 수출대상국의 식문화에 맞추지 않고 일본식 카레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음
 - 할랄인증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국내 판매가 중심이었지만, 취득 이후는 새로운 판매처 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출 도모

□ A현 식육처리시설의 할랄인증 취득

- A현의 식육처리시설은 2011년 일본에서 통용되는 소고기 할랄인증을 받았으며, 2012년에는 인도네시아 MUI로부터 국제적인 할랄인증도 취득하였음
 - 할랄제품은 2011년 이후 월 4톤(1일 200kg) 정도 판매되고 있는데, 주요 판매처는 유학생이나 체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할랄상점
- 처리시설에 할랄도축과 비할랄도축이 병존하는 경우 할랄도축을 마지막에 하거나 제일 먼저 실시하는 등의 시차(time-lag)를 두어 할랄과 비할랄이 겹치는 것을 피하고 있음
 - 부분육 처리도 동일한데, 일반적으로는 당일 절단의 맨 마지막은 할랄로 하며, 국내공급 중심의 시설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인정

3.4. 최근 일본 정부의 할랄 관련 지원제도

□ 농식품수출촉진대책 사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지원 실시

- 호주는 정부에서 할랄인증기관을 설정하고 인증에 필요한 최저요건도 명기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할랄인증기관에 관여하지 않고 있으며, 각 인증기관이 독자적인 기준에 의해 할랄인증을 실시하고 있음⁸⁾



표 9. 할랄인증기관에 대한 주요 국별 정부의 관여 정도

구분	일본 및 독일	호주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
유형	난립형	정부통제형	정부직속형
정부관여도	정부는 할랄인증기관에 관여하지 않음	정부가 할랄인증기관을 설정	할랄인증기관이 정부직속의 조직으로서 자국 내에 하나만 존재
인정기준 통일도	각 인증기관이 독자의 기준으로 할랄인증 실시	할랄인증 기준의 통일까지 이르지 않았으나, 정부에 의해 할랄인증에 필요한 최저요건 명기	할랄인증의 자국 내 통일기준 제정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平成25年度輸出擴大推進委託事業のうち國別マーケティング事業(ハラール食品輸出モデルの策定事業)」, 2014.3.에서 재정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농식품 수출확대 전략의 일환으로서 할랄식품 수출사업자를 대상으로 할랄인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일본은 농식품 수출 1조엔 달성을 위해 수출촉진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 중 할랄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수출 추진 사업자대상 대책사업”,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 “수출전략실시사업”이 있음⁹⁾
- 일본 정부는 “수출 추진 사업자대상 대책사업” 중의 하나로 할랄인증의 취득에 소요되는 인증비용, 컨설팅 비용 등에 대해 50%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 사업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을 통해 추진되는데, 새로운 수요개척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수입업체, 도소매업자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음

8) 호주 정부는 식육을 전략적 수출품목으로 육성하고자 할랄제도의 종교적 요소를 정형화한 AGSMS(정부관리 이슬람식 도축제도)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AGSMS제도는 식육의 위생관리와 할랄 적합성을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며, 할랄제도를 식육 처리기술절차에 시스템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음. AGSMS는 수출관리법 및 수출육 규칙을 근거로 농림성 검역 검사국(AQIA)의 감독하에 있음. AGSMS에서 정부(AQIS)는 ① 식육처리사업자에 대해 종교성을 간섭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증, ② 할랄 인증단체의 인정, ③ 인증서류 발행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통상 도축종사자와 감독자는 이슬람교도이며, 개별 도축시설이 할랄인지의 여부를 검사하는 것은 종교단체임. 그러나 도축종사자의 등록제도와 심사에 관여하는 이슬람단체의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실무는 종교단체에 위임하면서도 외형적으로는 정부가 관리함. 다만, 가공식품에 대한 할랄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음(일본 農林水産省, 「オーストラリア・ブラジル・シンガポールにおけるハラール食品輸出事例調査」, 2015.2.).

9) “수출 추진 사업자대상 대책사업”의 2015년도 예산은 8억 4,100만 엔이며,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 사업 예산은 13억 8,100만 엔, “수출전략실시사업”에는 1억 5,200만 엔이 책정되어 있음.



일본 정부는
농식품수출촉진대책
가운데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할랄에 적극
대응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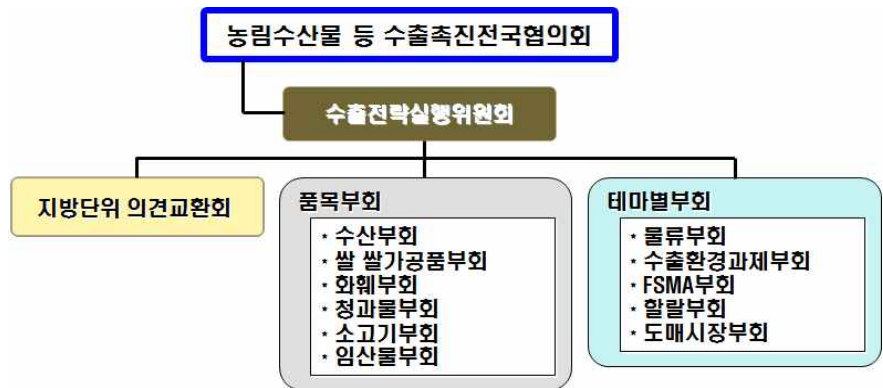
“
수출대책 사업
이외에도 타
정책사업을 활용하여
할랄 식육시설의
설비투자를 보조하고
있으며, 각종 할랄
정보·제도의 수집도
도모
”

- 특히, 신흥시장(베트남, 인도네시아, 중동 등)의 개척과 해외 주재 사업자와의 상담을 추진하는 해외프로모터를 설치하고 있으며, 이슬람권 할랄에 대응하고자 전문가를 배치

○ 또한, “수출전략실시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2014년 6월부터 수출전략 실행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수출전략실행위원회는 품목별 수출단체와 관련 부성청의 전문가로 구성됨

- 위원회에서는 수출확대방침에 근거한 품목별 수출단체의 수출방안, 해외 수입규제 등을 검토하여 수출전략 실시에 대해 논의
- 수출전략실행위원회는 지방단위 의견교환회, 품목부회, 테마별부회로 구성
- 테마별부회는 물류부회, 수출환경과제부회, FSMA(미국식품안전강화법) 부회, 할랄부회, 도매시장부회로 나누어져 있으며, 할랄부회에서는 할랄 인증 취득 지원, 수출 성공사례 창출 등의 과제를 정리검토

그림 6. 일본의 농식품 수출전략실행위원회 구성도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 수출촉진대책 이외에도 타 정책사업 활용하여 할랄 설비투자 등 보조

- 일본은 농식품수출촉진대책 사업 이외에도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을 활용하여 수출업체가 할랄 식육처리시설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 설비투자 사업비의 50%를 보조해 주고 있음
- 또한, “식품산업 글로벌전개 인프라정비사업”을 통해 이슬람국가를 비롯한 수출대상국의 각종 기준이나 규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수출업체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표 10. 일본 정부의 할랄식품 수출사업자 대상 주요 지원사업

구분	지원사업	사업 개요
규제 대응	수출 대응형 시설정비 (강한농업만들기교부금)	• 할랄 대응형 식육 처리시설의 정비에 관해 사업비의 1/2 보조금 지급 → 할랄 식육에 대해 설비투자 보조
	수출 추진 사업자 대상 대책사업	• 할랄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인증비용, 컨설팅비용 등이나, 설비투자는 제외)의 1/2 보조금 지급 → 할랄인증 취득비용 보조
	수출전략실시사업	• 수출전략실행위원회 할랄부회를 조직하여 할랄인증 취득 지원과 수출 성공사례 창출 등의 과제 검토 → 할랄식품 수출 안내, 비 이슬람국가의 할랄식품 수출사례 등의 조사결과 검토제공
기타 규제	식품산업 글로벌전개 인프라정비사업	• 각국의 식품 규격기준규제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 → 수출대상국의 규제에 대해 최신 정보를 조사공유
소비자 개척	수출종합 서포트 프로젝트(국내상담회/ 해외에서의 매칭상담회)	• 국내외 현지 유통 수입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등과의 네트워킹 장을 JETRO 주최로 제공 → 사업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려운 현지 유통업자와의 네트워킹 장을 제공

자료: 일본 農林水産省, 「平成25年度輸出擴大推進委託事業のうち國別マーケティング事業(ハラール食品輸出モデルの策定事業)」, 2014.3. 및 농림수산성의 수출촉진사업에서 재정리

“

JAPAN HALAL EXPO를 개최하여 일본 할랄 농식품의 국내외 수요개척에 적극 활용

”

□ 할랄 엑스포 개최를 통해 국내외 시장 개척

- 일본은 아시아와 중동 7개국이 참가하는 JAPAN HALAL EXPO를 2014년 11월에 처음으로 개최하여 할랄 관련 국제세미나, 전시회, 상담회 등을 실시하였음
 - 2015년 11월에도 개최할 계획으로 있어 일본 할랄 농식품의 국내외 수요 개척에 적극적인 공세 전개

그림 7. 일본의 HALAL EXPO 개최



“

일본처럼 구체적인
품목별·업체별
할랄인증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할랄인증을 위한
기반 및 정보를
구축해야

”

4. 정책 과제

□ 구체적인 할랄인증의 실태 파악 우선

-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할랄 시장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향후 이슬람권이 농식품 수출의 주요 대상국으로 부상될 것으로 판단하여 ‘할랄 식품 TF’를 2015년 4월 발족하였으며,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내에 ‘할랄분과위원회’도 구성·운영 중에 있음
- TF와 할랄분과위원회에서는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나,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품목별·업체별 할랄인증 실태 파악이 이루어져야 함
- 즉, 효율적인 할랄시장 개척 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 파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일본과 같은 할랄인증 실태 조사의 선행이 반드시 필요함

□ 할랄인증 취득을 위한 기반 정비 및 정보 구축

- 일본 정부는 각종 지원사업을 통해 할랄 식육처리시설의 설비투자 비용과 할랄인증 비용 등의 일부(50%)를 보조해 주고 있음
- 우리나라는 현재 할랄인증 비용만 지원하고 있으나, 할랄 농식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축장 건립 및 관련 지원정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은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사업을 위탁하여 이슬람 국가별 할랄 규제제도는 물론, 비이슬람 국가의 할랄식품 수출 실태도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 해외 지사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지사를 활용하여 할랄인증의 대표적인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할랄시장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공개 하도록 함

- 또한, 싱가포르의 현지 aT 연락사무소를 확대 개편하여 말레이시아 등 주변의 이슬람 국가의 관련 규제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집·제공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하여 비이슬람국 가운데 할랄 농식품 수출이 많은 국가의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하는 방안 추진

□ 국내 할랄인증기관이 타 국가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일본의 경우 타 국가의 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받은 것이 확인된 기관은 일본무슬림협회, 일본할랄협회, 일본아시아할랄협회 등 6개소인 반면, 우리나라는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가 유일함
 - KMF는 말레이시아 JAKIM에서 공인을 받았으나, 인도네시아나 UAE 등에서는 공인된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
- 따라서 정부 지원을 통해 할랄 관련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성분 분석이나 검증에 대한 비용도 일부 지원함으로써 KMF가 인도네시아 MUI 나 UAE 정부에서 인정하는 인증기관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일본무슬림협회나 일본할랄협회 등과의 교류를 통해 할랄인증기관으로 공인받을 수 있는 노하우 습득
- 또한, 한국식품연구원에 할랄식품사업단이 출범(2015.3.12.)하였으므로 사업단을 중심으로 할랄 시장별 인증기준에 맞는 할랄식품을 개발하여 수출 확대에 기여하도록 함
 - 이슬람권 방문객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요 관광지별로 할랄인증을 받은 음식점을 확대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방안 마련 고려

□ 할랄 상담회 및 할랄 농식품 박람회(EXPO) 확대 개최

- 일본은 업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련하기 곤란한 이슬람 현지 유통업자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현지의 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등을 초청하는 매칭 상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JAPAN HALAL EXPO도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국내 할랄인증기관이 타 국가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 지원 필요

”

“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상담회가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할랄 엑스포
개최도 고려해 볼
필요 있어

”

- 우리나라도 할랄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각종 국내외 상담회를 일회성이 아닌 상시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할랄 농식품 수출 증대는 물론, 국내 유입 이슬람을 대상으로 한 내수시장 증대도 도모해야 하며, 할랄 관련 해외의 각종 박람회 참가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임
- 국내 할랄산업 인프라 구축 계기 마련과 국산 농축수산물의 할랄 시장 수출 등을 위해 향후 일본과 같은 규모의 할랄 엑스포 개최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JAPAN HALAL EXPO는 전시상담회와 세미나 개최로 나뉘는데, 전시상담회에는 식품, 원재료, 조미료,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품, 식품가공검사설비, 호텔, 레스토랑, 관광상업시설, 여행상품, 공항시설 등 여러 분야에 걸쳐 할랄제품이 출품되어 상당한 규모로 실시



2015년

-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박기환)
- 제103호 귀농·귀촌 증가 추세와 정책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정섭, 심재현)
- 제102호 한·미 FTA 발효 3년, 농업부문 영향과 시사점(한석호, 정호연, 이수환, 윤정현)
- 제101호 2015년 주요 농정이슈(황의식, 이계임, 성주인)

2014년

- 제100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4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 제97호 발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 제76호 해외조립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희민, 이용선)
-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 제16호 걷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memo

KREI 농정포커스 제104호

할랄 농식품의 한·일 대응 실태와 과제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5. 6. 2.
발 행	2015. 6. 2.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김홍상,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우병준, 문한필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ISBN: 978-89-6013-742-4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